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기공

2005년 완공 서울등 5개분원과 복지네트워크화

도심포교의 선주주자인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복지중심도량으로 거듭난다.

법왕사는 11일 대구시 수성구 파동 공사현장에서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구·부산·서울 등의 전국 5개 분원을 묶는 '복지네트워크망'을 갖춰 명실상부한 종합복지도량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법왕사가 복지불사에 나섬으로써 현재 3개의 복지법인이 있는 대구지역 불교사회복지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게 됐다.

비스가 가능한 국제불교 회의실은 그동안 지역 불교행사의 공간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등 대구지역 포교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법왕사는 이미 경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조감도.

2005년 완공예정인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천 평 규모, 100여 평의 만불전을 비롯해 각 층별로 전시장, 유치원, 생활복지시설, 예식장 등 각종 문화 복지 공간들이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복지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4개 국어 동시통역 서

를 실시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왕사는 회주 정무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장인 한

나라당 이원형 국회의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1일 기공식을 가졌고, 10일에는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공식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스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등 700여명이 참석

이날 우수 포교사 시상식은 서울경기도지역 군포교 4팀과 강인구 포교사에게 총무원장장이 수여되는 등 모두 43개부문의 시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포교회관 건립 모연문 서명식을 열고 오는 2007년

포교사단 창립2돌...기념법회·품수식

한 가운데 창립2주년 기념법회 새 포교사 308명 배출 '포교회관' 건립불사 시작

한편 기념법회에 앞서 포교사단은 308명의 신규 포교사들에게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품수식도 거행했다. 2000년 3월 12일 출범한 포교사단은 현재 2천5백여명이 4백여곳의 포교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포교사단은 10일 조계사에서 포교회관 건립 모연문 서명식을 가졌다. 왼쪽 4번째부터 도영스님, 상운스님, 김대중 포교사단장, 김기병 전 단장.



육군 제2훈련소 3천여명 수계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최재필)는 10일 연무사 법당에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초청,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3천여명의 훈련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지홍스님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불회전의 신심으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숭신수범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수계사로 나선 지홍스님이 불자장병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있는 모습.



미륵종 창종3주년기념식 봉행 의결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승정)은 11일 경남 진주시 불동암주지 행안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열반재일을 맞아 창종 3주년 기념식과 부처님 열반재를 봉행하기로 의결했다. 미륵종은 이날 보살계 수계식도 거행한다. 총무원장 송승정(가운데)이 종회를 주재하고 있다.

계시판

▲ '거룩한 어머니상' 대상자 추천=부산 두송복지관은 거룩한 어머니상을 제정,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29일까지. (051)265-9471

▲ 어린이집 교사 모집=부산 용호복지관은 어린이집 5세반 보조교사 업무를 담당할 파트타임 교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 불교기초교리 및 해심밀경 강의=마하연 포교원은 '불교기초교리 및 해심밀경' 강좌를 연다. 동국대학교 교수 묘주 스님이 강의하며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523-9911

▲ '한마음 가족 교실' 프로그램=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마음 가족 교실' 아동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3월부터 10개월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3-4시, 첫째주 토요일 오후 4-5시에 열린다. (02)2282-1100

▲ 미술치료 강사 자원봉사=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 작가와의 만남=은평구립도서관은 4월 3일 오후 3시 전월일기의 집필작가 김정수 씨와 함께 '드라마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연다. (02)385-1671

▲ 안부전화서비스 자원봉사=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628-6737

태고종 각급기관장 인사단행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3일 교육원장에 원법 스님(전 총무원 부원장·대전 보은정사), 포교원장에 무공 스님(전 종정사사실장·서울 무량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재정경제원장에는 법선 스님(전 총무원 재무부장·서울 불국사), 중흥연구원장에는 수열 스님(전 총무원 규장부장·제주 선광사), 중흥문화원장에는 원봉 스님(전 총무원 부원장·청주 보현사, 전통불교문화원장에 지족 스님(서울 대흥사), 국제불교문화원장에 혜당 스님, 고시위원장에 학성 스님(부산 중무원장·부산 대승사), 정수원장에 이경숙 기자

목탁소리 고국부처님 모시러...

김원우 (취재1부 차장)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살고 있는 이영미 포교사가 한국에 왔다. 2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올 때 조계종 포교사가 된 이영미 보살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고국 부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다.

이 포교사가 불교와 인연 맺은 것은 2년 남짓. 불자집안에서 자란 이 포교사는 어느 날 자신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나 고국에서 딸을 생각하며 계속해 불공을 모셔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고교 2학년이던 이 포교사는 10여개나 있었지만 한국 젊은 한군데도 없었다. 부득이 인근 태국사찰을 몇 개일 다녔으나 정처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포교사는 남편에게 부탁, 1년 6개월 전 대지 1천여 평의 가옥을 매일 열림원이라는 절을 개원했다. 애리조나주 최초의 한국사찰이었다. 열림원에는 부처님 교리에 목말랐던 고교 30여명과 유학생 20여명이 매주 찾아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애리조나주 주 수도인 피닉스에서 50여 불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현지인 10여명이 매주 선수행을 하고 있다.

최근 열림원 신도들은 5월 부처님오신날 인근도시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명도 새로 정하고, 한국 불상과 한국 스님을 모시자고 발원,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이 불자들의 발원이 이뤄지도록 해보자며 한국 땅을 밟은 이 포교사, 조계사 인근 불거점을 돌아다니며 보았지만 불사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이 포교사는 "애리조나주 불자들이 법단을 조성하고 한국부처님 모셔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후원의 가옥을 매일 열림원이라는 절을 개원했다. 애리조나주 최초의 한국사찰이었다. 열림원에는 부처님 교리에 목말랐던 고교 30여명과 유학생 20여명이 매주 찾아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애리조나주 주 수도인 피닉스에서 50여 불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현지인 10여명이 매주 선수행을 하고 있다.

최근 열림원 신도들은 5월 부처님오신날 인근도시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명도 새로 정하고, 한국 불상과 한국 스님을 모시자고 발원,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이 불자들의 발원이 이뤄지도록 해보자며 한국 땅을 밟은 이 포교사, 조계사 인근 불거점을 돌아다니며 보았지만 불사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이 포교사는 "애리조나주 불자들이 법단을 조성하고 한국부처님 모셔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후원의 가옥을 매일 열림원이라는 절을 개원했다. 애리조나주 최초의 한국사찰이었다. 열림원에는 부처님 교리에 목말랐던 고교 30여명과 유학생 20여명이 매주 찾아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애리조나주 주 수도인 피닉스에서 50여 불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현지인 10여명이 매주 선수행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주시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미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3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풍동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山蓼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蓼(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이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 손발 저림증이 없어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 인파선이 나왔다. ◆ 자궁 냉증이 없어졌다.
- ◆ 변비가 낫았다. ◆ 열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열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蓼(黨蔘)을 드시기 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강원도 정선군 평면 호르리 323번지
-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 성명: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 교육기간: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 교육장소: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 개강 및 강의일정: 5월 27일 ~ 6월 27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 강의내용: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연단의 자세와 제스처,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I)
-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현재 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TEL: (02) 736-6940 FAX: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통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냉 습 진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관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냉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간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인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 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영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중의 재로 변화하여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실행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슴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락처: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